

무안군, 전남 마을이야기 박람회 개최

오늘부터 내달 1일까지 무안스포츠파크서

무안군은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무안스포츠파크에서 '2019 전남 마을이야기 박람회'가 열린다고 29일 밝혔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마을이야기 박람회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2019 전남 마을이야기 박람회'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고향이 사라져 가고 있는 요즘 지역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새로운 문화 관광 콘텐츠로 조성하고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 마을 이야기 박람회는 크

게 주제관, 홍보관, 산업관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주제관에서는 '마을 세상을 품다 : 전남의 색, 맛, 색 이야기'라는 주제로 22개 시·군의 대표마을이 참가해 저마다의 마을을 이야기 한다.

무안군에서는 무안읍 용월리 상동마을이 박람회에 참여해 천연기념물 제211호인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와 무형문화제 41호인 상동들노래를 소개하고, 마을의 특산물인 된장 홍보할 예정이다.

홍보관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마을기업 및 제품을 전시하고 민선7기 1년 성과물 및 주요사업을 홍보한다.

특히, 한가위를 앞두고 지역의 대표 관광콘텐츠를 소개하고 지역 특산물 판매 코너를 마련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관에서는 전남 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해 지역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부스에서는 기업 생산품 전시 및 판매 기회를 제공한다.

박람회 개막식은 30일 무안 종합스포츠타운에서 열리며, 내빈소개, 개막퍼포먼스, 전시관 라

운딩 축하공연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박람회 기간 동안 주무대에서는 지역 특산물 경매 및 경품 이벤트, 관람객과 함께하는 MC축서 무대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되며, 우리 마을 이야기 자랑대회, 주제관 참여마을 영상물 상영 등 볼거리가 마련돼 있다.

특히, 야외에서는 무안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무안향토음식관(청년상가)과 푸드트럭존이 설치돼 먹는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진도군, 추석맞이 수도권 직거래장터 운영

진도군이 한가위를 맞아 지난 28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수도권 일원에서 진도아리랑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하고 있다.

29일 진도군에 따르면 보배섬 진도 청정 농수산물 소비촉진과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용인시 죽전1동·고양시 성사동 일원에서 김, 미역, 반 건조생선, 홍주, 울금, 구기자 등 50여종의 청정 농수특산물을 특별 판매한다.

이번 직거래 장터는 진도 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는 농수특산물로

서 생산자가 직접 물건을 가져와 판매해 유통 과정이 축소된 만큼 가격도 저렴하다.

특히 다양하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진도 농수특산물을 수도권 지역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농수특산물 판로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행사 기간 동안 특산물·관광?투자유치 등 진도군 홍보부스, 특산물 시식·시음과 사은품 증정 등도 진행하고 있다.

진도=조성용 기자

가을 특급 '낭만향구 목포 버스킹' 재개

지난 봄 목포를 낭만으로 물들였던 '낭만향구 목포 버스킹'이 가을을 만난다.

목포시는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던 '낭만향구 목포 버스킹'이 더욱 강력해지고 탄탄해진 구성으로 오는 9월 7일 재개된다고 밝혔다.

저글링쇼, 버블쇼, 국악, 밴드, 댄스, 마술 등 다양한 장르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이번 버스킹은 7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부터 5시 까지 유달산 노적봉주차장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5시 부터 7시 까지 평화광장 ▲매주 금·토·일 북항노을공원과 원도심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가을 버스킹은 9월 부터 10월 매주 금, 토, 일요일을 대체하고 풍성한 문화예술축제로 수놓을 '목포(愛) 가을(藝) 페스티벌(樂)'과 연계해 더욱 풍성하고 활기차게 진행된다.

'낭만향구 목포 버스킹'의 자세한 일정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버스커와 방문객들이 음악과 공연으로 소통하는 축제 한마당을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

완도군, 추석 맞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실시



내달 11일까지 실시

완도군에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관광객에게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29일부터 9월 11

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 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 표시 위반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미 표시 2회 이상 위반자·거짓 표시 위반자는 원산지 표시 교육 또한 이수해야 한다.

군은 청정바다수도 완도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산물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하고자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매달 시행할 계획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영암군, 공직자 정책개발 워크숍 개최

영암군에서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영암군산하 공직자 28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개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정책개발 역량 강화와 조직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였으며, 국도비 공모사업의 기조를 파악하고 정부혁신 교육을 통해 영암군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정부공모사업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의 이해,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 실습과 함께 작성한 내용을 발표하는 요령 습득 등 실무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진행되었다.

군 관계자는 "참석자 대부분이 8급이하 공무원들로 이번 정책개발 워크숍을 통해 앞으로 영암군을 이끌어 나갈 소중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암=김정호 기자

강진 푸소체험, 청소년 인성교육의 선진모델 정착 노력

체험 관련 협력 요청 차 도교육청 방문

강진군은 지난 27일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매년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는 푸소체험의 전국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교육행정의 정책적 지원 등 협력을 요청하고자 전남도교육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교직원 연수 시 푸소체험의 활용, 2020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남도 교육청과 군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대도시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푸소(FU-SO) 체험은 'Feeling-Up, Stress-Off'의 약자로 감성은 키우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라는 의미로, 농촌 집에서 1박2일 또는 2박3일간 농가와 함께 생활하며 농촌만이 가지는 여유와 따뜻한 감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번아웃(Burn-out) 증후

군이 만연한 현대인 및 학생에게 안성맞춤으로 '농촌감성'의 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힐링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군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전남교육청과 함께 학교폭력가·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푸소 체험의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교육공간이 아닌 '농촌'이라는 색다른 곳에서 현장중심으로 인성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확인한 바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함평군, 60세 이상 무료 안(眼) 검진 실시

함평군보건소가 지난 26~27일 이틀간 60세 이상 지역 노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안과 검진을 실시했다.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해 진행되는 이번 검진은 안(眼)질환 조기발견 및 실명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안과 전문의로 구성된 검진팀은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정밀 안저 검사 등의 안질환 검사를 실시하고 검진결과에 따라 개인별 맞춤 안약과 돋보기를 무료 제공했다.

특히 백내장, 녹내장 등 수술을 필요로 하는 안질환 대상자 26명에게는 병원연계를 통한 적기치료 및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며, 저소득층 1명의 경우 수술비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정명희 군보건소장은 "급격한 고령화로 지역 안질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눈 관련 전문병원이 지역에 전문한 만큼 인근 지역 전문병원과의 꾸준한 연계로 무료 안(眼)검진을 지속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평=김평춘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